

◇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하 다한증 수술

공준혁, 이용배, 전상훈, 장봉현, 이종태, 김규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최근 흉부 내시경의 수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다한증 환자에서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이 과거에 비해 비침습적이고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 1998년 5월부터 본원에서는 일일수술실을 운영하면서 후두마스크를 이용하여 전신 마취를 함으로서 수술을 보다 간편하게 시행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8년 5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총 32례의 일차성 다한증환자중 양측 흉막유착으로 수술을 중단한 1례를 제외한 31례를 대상으로하였다. 25례[81%]가 수장부, 액외부 및 족저부에 다한증을 보였고, 안면부에도 나타난 경우가 2례, 두피나 안면에만 국한된 경우도 2례있었다. 전례에서 일일수술실에서 후두마스크를 이용하였다. 양와위에서 양팔을 90도 정도 외전시키고 약 10-15도 정도 두부를 거상시킨 상태에서 수술 하였다. 기구는 모두 2mm를 사용하였고, 이산화 탄소가스를 주입하여 폐의 허탈을 유도하였다. 교감신경절개[sympatricotomy]의 위치는 두피나 안면의 경우 T2, 수장부는 T2나 T3, 액외부의 경우 에는 T3나 T3-4를 기준으로 하였다. 중심정맥 카테타를 이용하여 가스를 제거하였다.

결과 : 전례에서 수술직후부터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술후 기관내 이물감없이 당일 퇴원이 가능하였다. 기흉, 안검하수는 없었으나, 1례에서 교감신경과 평행하게 지나가는 늑간동맥을 전기소작중 실수로 혈흉이 있어서 술후 3일째 흉강천자를 시행하였다. 27례[87%]에서 체부에 보상성 다한증을 호소하였으며, 8례[30%]에서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결론 : 전신마취로 흉부 교감신경절제를 시행할 경우 후두마 스크를 잘 이용함으로서 비교적 편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책임저자: 이용배(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발표자: 공준혁(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